

‘구마라집’ 가장 위대한 역경 삼장법사

이기운 교수 ‘구마라집 삼장법사’ 번역 출간

“내 역경(譯經)에 잘못된 곳이 없다면 죽은 뒤 몸을 불태워도 허는 타지 않을 것이다.”

〈법화경〉 〈아미타경〉 〈유마경〉 〈대지도론〉 〈중론〉 등 35부 380여 권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한역했던 구마라집(343-409). 그의 호언대로 다비에도 그 허만은 타지 않고 남았다.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것은 달마의 선법(禪法) 이전에 구마라집의 역경(譯經) 덕분이었다. 구마라집은 촉법호, 석도안 등과 함께 제1세대 역경을 이끈 역경보살의 원조다. 구마라집은 진제, 현장, 불공과 함께 중국불교의 4대 역경가로 불리지만 역경한 경전과 일화 뿐 알려진 사실은 적다.

국내 법화학 권위자 이기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오우초오 에니치(横超慧地) 등의 저술을 바탕으로 구마라집에 대한 최근 4년여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구마라집 삼장법사>(영산법화사 출판부)를 번역·출간했다.

이 교수는 “역사상 수많은 훌륭한 역경 삼장법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경 삼장법사가 구마라집 법사”라며 “구마라집 법사는 중국 역경사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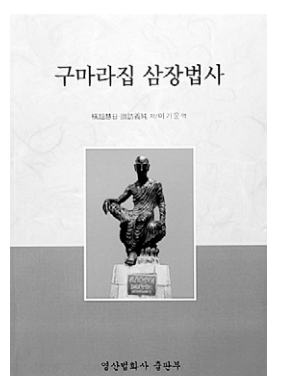
이기운 교수

위대한 승려”라고 말했다. 삼장법사 칭호는 역경가들이 경·율·론 삼장(三藏)을 번역해 불은 칭호다.

서역지방 구자국(현재 위구르 자치구)에서 출생한 구마라집은 일생 동안 380여 권의 경전을 한자로 한역했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들은 삼론종, 천태종 등 중국의 여러 종파에서 채택됐을 만큼 중국불교의 흥기에 큰 기여를 했다.

이기운 교수는 구마라집의 공덕 가운데 <묘법연화경> 역경을 우선 손꼽는다. 이 교수는 “당시 촉법호의 <정법화경>이 유통됐지만 문장이 어렵고 부처님의 본 뜻을 들어내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 구마라집 법사가 <묘법연화경>을 훌륭한 문장으로 알기 쉽게 전해 법화의 위대한 법문을 대중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모두 불도에 이끌기 위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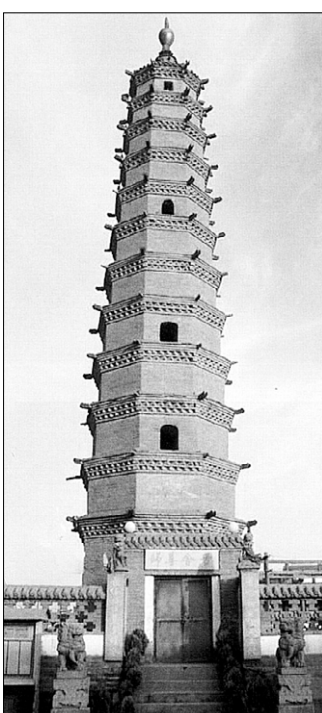


영산법화사 출판부에서 펴낸 <구마라집 삼장법사>

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세상에 출현한다는 출세번회를 밝힌 경전이다. 부처님의 분마음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해 법화행자들은 경중의 왕으로 여긴다.

이 교수는 “구마라집은 <묘법연화경>을 번역할 때 2000여 제자를 모아놓고 중의 등 치밀한 과정을 거치며 역경했다”며 “역경이 번역 이상의 불사(佛事)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구마라집 삼장법사>는 제1부 구마라집 법사의 업적과 불교 연구, 제2부 구마라집 법사의 생애와 역경 사업으로 나눠 구마라집의 생애와



구마라집의 허가 불인된 허탑.

제자들, 역경활동 등을 고찰했다. 부록으로 해교의 <고승전> 역경 조 번역문과 구마라집 법사 연보, 구마라집의 여정 등도 실었다. (02) 762-4922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익산, 백제 수도나 별부나 ‘설전’

‘익산 왕궁리 유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익산은 백제의 수도다?” “아니다. 작은 서울이었다.” 왕궁리 5층석탑(국보 제123호) 등 다수의 문화재가 출토돼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익산 왕궁리 유적을 두고 한·중·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심영섭)는 4월 9-10일 영광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익산 왕궁리유적의 조사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익산 왕궁리 유적 발굴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학술대회에는 이경부 문화재청장, 김봉근 국립

문화재연구소장을 비롯해 나용호 원광대 총장, 이한수 익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삼룡 前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은 ‘익산문화권에서 왕궁리유적의 위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前 소장은 “익산은 백제 무왕의 천도지로 경양됐고, 핵심적인 유적이 왕궁성”이라고 설명했다.

최완규 교수(원광대)는 주제발표 ‘고대 익산과 왕궁성’에서 ‘익산 천도는 무왕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성 교수(전주교대)는 ‘7세기 백제에서의 익산 위

상의 변화’를 통해 “무왕이 익산을 수도와 같이 취급해 수도의 행정구역인 별부(別府)를 설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천도 여부와 시기 등에 이견이 있을 뿐 왕궁리 유적이 왕궁 혹은 그에 버금가는 유적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공평치양 연구원(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은 “익산 왕궁성의 원형 유적이 규모는 작지만 아름답고 가치하며 깊은 문화적 소양과 우수한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백제문화의 정수”라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JFK공항 직지카페서 직지 전시

청주시 ‘직지’ 마지막장 복원활자판 설치



미국 뉴욕 JFK공항 내 직지카페에 전시된 직지금속활자판.

미국 뉴욕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됐다.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최근 뉴욕 케네디(JFK)공항 내 직지카페(대표 이준석)에 세계기록유산 직지금속 활자판을 상설 전시한다고 발표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24일 직지카페에 직지금속활자판과 직지 영인본(하권)을 설치했다.

이번에 전시된 금속활자는 총 113자로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 마지막장(간기부분)을 복원한 활자판이다. 활자판(가로 34.5cm×세로 22.3cm)은 목제 인판틀(가

로 49cm×세로 29.5cm×높이 11cm) 안에 배치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유효정(직지사 입찰)씨는 “이번 전시는 미국 뉴욕의 관문이며 연간 방문객 600만명인 케네디 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 직지와 고인쇄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청주시는 앞으로도 다국어 홍보를 제작 등으로 직지카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직지의 가치와 청주의 문화사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백제 문화 강좌 열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 이하 박물관)은 4월 8일~10일 14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수요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백제 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전시유물 감상, 특별전 특강 및 유적지 답사 등의 강좌로 구성됐다. 참가 희망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박물관 김진영 교육사는 “이번 강좌는 ‘각 분야별 권위자들의 심도 있는 강의 내용을 통해 문화재 감식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41)833-8562 김진성 기자

“불교수행 몸·마음 관찰원리서 출발”

이의원 원장 특강

부처님 가르침을 한의학 치료원리에 접목시킨 강의가 열려 눈길을 끈다.

<기의학으로 고친다>의 저자 이의원 원장(도암한의원·사진)이 4월 11일 양재동 도암한의원 세미나실에서 ‘불교와 기의학’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 원장은 “큰 사찰에 있는 산신각 칠성각 신앙은 산의 기운, 우주의 기운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불교의 수행전통이 잘 드러난 특별한 수행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원 원장은 “불교수행을 비롯해 모든 수행법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원리에서 시작된다”며 “몸의 기운이 맑고 충만하지 않으면 깊은 수행단계로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난치병 치료 전문가로도 알려진 이 원장의 특강은 18일 오후 5시, 양재동 도암한의원 세미나실에서 ‘신수심법과 위빠사나’를 주제로 계속된다. (02)585-8868

조동섭 기자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정비 나서

13개 사찰 정비... 6개 사찰 소화시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존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기도 제2청사는 △고양시 덕양사 석축 해체 및 옹벽 설치 △남양주시 수종사 약사전 개축 △의정부시 원효사 송라당 및 일주문 보수 △양주시 백화암 원통전 개축 등 경기도 내 13개 사찰에 19억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 덕양사, 남양주시 보광사 및 견성암, 의정부시 망월사,

양주시 백화암, 동두천시 자재암 등 6개 사찰에는 예산 8억3000만원을 들여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경기 제2청사 김태현(문화체육관광)씨는 “경기 제2청은 낙산사 화재 이후 2007년부터 전통사찰 내 소화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문화재 관련 국비가 5억3000만원으로 증가(2008년 3억2000만원)해 보존정비 사찰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Lotus Lantern Festival

부산연등축제

봉축상징물 점등식 4월 17일 (금) 오후 6시 30분 부산역 광장

- 어울림한마당 (구덕운동장 일원) 4월 26일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축하공연 : 장윤정, 박현빈 외
- 제등행진 (구덕운동장 ~ 부산역 광장) 4월 26일 (일) 오후 6시 30분
- 봉축연합대법회 (구덕운동장) 4월 26일 (일) 오후 5시
- 대동화합한마당 (부산역 광장) 4월 26일 (일) 오후 9시
희향공연 : 강강술래, 난타

시민연등축제 봉축문화의 거리 4월 24일 (금) ~ 25일 (토) 오후 2시 ~ 9시 광복로 일원

주최 _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 주관 _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문의 _ ☎ 051)867-0501~3 | 전선 _ 051)867-0504
 특별후원 _ 부산광역시·문화체육관광부 | * '봉축연합대법회' 전 과정은 FM89.9MHz 부산불교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 2020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지를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051) 867-0501~3 www.bba48.or.kr ▶ 4월 26일 일요일 오후 6시 ~ 8시 2시간 동안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역광장까지 교통통제가 실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